



〰……해 이미 저물어 오히려 煙霞絢爛하며
 海棠차 저물어서 다시 橙橘이 芳馨하다.
 故로 末尾 晩年엔 君子 다시 마땅히 精
 神을 百倍 할 지라.
 文字 위위가면서 목은 해를 보낸다.

〰……이제 나뭇잎은 죽고 瑞雪白葉이 山天
 을 덮는다.
 安全點檢 또한 經倫이 쌓여 어연 通卷
 열한번 째를 맞는다.

〰……危險없으면 保險없다.
 李相臣理事 東亞細亞保險會議 基調演說
 은 保險界의 先進韓國을 또 한번 誇示.

〰……第1回 防火세미나 첫 걸음 치고는 너
 무 큰 巨步, 防火意識 鼓吹와 豫防活動
 에도 長足の 發展있기를.
 연이은 全國初, 中, 高, 學生 불조심 雄
 辨大會, 고사리 같은 손 민들레 모양의 얼
 굴에도 사자의 웨침이.

〰……부두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고
 防火管理者의 必讀을 권하며 本誌 있는 곳
 에 災害 없다는 배아리 全國에 震動할 날
 멀지 않으리……

<尹>

火災安全點檢《年2回刊》

(通卷11)

登錄番號 卍 520

登錄日 1973年 10月 11日

發行日 1979年 1月 1日

印刷日 1978年 12月 30日

非賣品

發行人 李 養 浩

編輯人 金 雲 淑

印刷人 李 南 亨

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
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-614
 汝矣島 郵遞局 私書函 27號

電話 (782) 8111~8125

(783) 2121~2135

本誌는 雜誌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要綱을 준수한다.